

**삼성전자, UCC폰 국내 출시**



삼성전자는 지난 7월18일 캠퍼나 편집 장비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휴대폰으로 전문가 수준의 UCC를 제작할 수 있는 "UCC폰(SCH-B75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UCC폰의 가장 큰 특징은 한층 강화된 동영상 촬영 기능이다.

폴더 부분이 상하 좌우로 돌아가는 스위블 타입 디자인을 채택해 실제 캠코더를 이용하는 것처럼 촬영을 할 수 있다. 폴더와 LCD가 각각 155도, 210도 회전하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인터넷 동영상을 만들 때 사용되는 QVGA(320×240)급 보다 한 단계 높은 해상도인 CIF(352×288)급으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 보다 선명한 화질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UCC폰"의 또 다른 특징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기능이다.

휴대폰 안에 "비디오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내장해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 없이도 마치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사용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자신만의 테마와 타이틀을 삽입할 수 있으며 직접 배경 음악이나 나레이션 녹음 등을 넣을 수도 있다.

또한 편집한 동영상은 MPEG4 압축방식으로 일반 웹사이트 등에 자유롭게 업로

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초점(AF)기능이 가능한 300만화소 디지털 카메라 모듈을 장착했으며 위성DMB, 블루투스, VOD, MOD, MP3를 지원하는 등 멀티미디어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LG트롬, '트롬세탁기+건조기' 타워형 패키지 출시**



LG전자가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트롬세탁기와 건조기로 구성된 타워형 패키지를 출시했다.

LG전자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전국 주요 매장을 중심으로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 트롬(TROMM)세탁기(모델: WD-G150A)와 건조기(모델: TD-V131PA/NA)로 구성된 타워형 패키지를 판매한다.

트롬 건조기는 세계 최초로 상하 이동 설치 가능한 버튼 조작 패널을 적용, 사용 편의성과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건조기와 세탁기를 상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타워형으로 구성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사용자가 허리 높이에서 모든 버튼을 조작할 수 있다.

이 패키지는 프리미엄 고객층을 겨냥해 세탁기와 건조기 각각 세계 최대 용량인 15kg, 10kg급 제품으로 구성됐다. 제품 판매가는 세탁기 109만원, 건조기 143만원이다.

건조기는 10kg 분량의 빨래를 90분 만에 건조할 수 있고, 신발 속옷 등 빨래 특

성에 맞는 다양한 건조 코스와 99.9% 살균 기능까지 갖췄다.

이외에도 △건조 겸용 세탁기 대비 세계 최대 10kg의 대용량 건조가 가능하고,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 건조 겸용 세탁기 보다 에너지 소비량도 적다.

또한 LG전자는 이 패키지 상품을 통해 세탁, 건조 등이 가능한 복합 세탁공간 개념인 '런드리 룸(Laundry Room)' 등의 선진 세탁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엠트론, 세계 최고 속도 SSD 개발**



플래시메모리 기반 SSD 전문업체인 엠트론은 읽기 속도 100MB/s(메가바이트/초)·쓰기 속도 80MB/s 이상인 싱글레벨 셀(SLC) 낸드플래시 기반의 128GB SSD 개발에 성공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엠트론이 개발한 SSD는 독자 설계 기술인 '다채널 병렬 어레이 제어 방식'을 채택해 경쟁사 대비 읽기·쓰기 속도를 30~40% 이상 높이는데 성공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SSD의 평균 속도는 읽기 70MB/s·쓰기 60MB/s 수준이다.

엠트론의 SSD는 읽기·쓰기 속도 이외에도 임의 접근시간(액세스 시간)이 기존 고성능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비해 7배 이상 빨라, 컴퓨터 부팅시간을 단축하고 스와핑이나 멀티태스킹 작업환경에서 매우 유용하다.

특히 엠트론은 이번 제품에 독자 개발한 원 칩 컨트롤러를 채택, 부품 수를 최소화했다. 엠트론이 개발한 원칩 컨트롤러는 최대 64개 플래시메모리 칩을 제어할 수 있다.

엠트론은 128GB 제품 이외에도, 4GB, 8GB, 16GB, 32GB, 64GB 등 용량별 총 6개 제품을 데스크톱(3.5인치)과 노트북(2.5인치) 두 용도로 개발해 놓은 상태로, 이달 말 미국·유럽·일본의 주요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공식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비티씨, 24인치 모니터 출시**



비티씨정보통신은 HDCP를 지원해 차세대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에 장착이 가능한 24인치 LCD 모니터 '제우스 7000 240MDPF'를 6월 11일 출시했다.

'제우스 7000 240MDPF'는 1080P의 고해상도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최신 HDCP 기능을 지원해 PS3와 XBOX 360, HD DVD 플레이어 등에 장착,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알맞다. 또 비티씨가 무결점 선언을 통해 품질을 보증한 우수한 제품으로 24인치 LCD 모니터중 가장 빠른 5ms의 응답속도와 1000 : 1의 명암비, 400칸벨라의 밝기, 상하좌우 160도의 시야각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모니터 양 측면에는 5W의 스테레오 스피커를 기본 내장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다기능 스탠드를 채택해 피벗 기능, 스위

블 기능, 엘리베이션 기능 등 편리한 부가 기능도 있다.

김성기 사장은 "지난달에 22인치 LCD 모니터 유통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디자인과 품질,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매직, 연기발생 줄인 오븐·가스레인지 출시**

주방가전 전문기업 동양매직이 연기 발생을 감소시키고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무연무수(無煙無水) 오븐레인지·가스레인지'를 출시했다고 지난 7월5일 밝혔다. 이 제품은 그릴높이를 국내 최대인 123mm로 높여, 조리시 기름이 그릴 상단에 튀는 것을 방지했다. 기존 제품은 기름이 그릴 상단에 튀 경우 연기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 오븐 내부의 연기를 그릴 상단 버너로 다시 한번 가열, 완전연소시키는 '2차 회오리 재연소 방식'도 채택해 연기발생을 감소시켰다. 조리시 물을 따로 넣어야 하는 불편함도 해결했다.

이 제품은 동양매직에서 자체 개발한 '매직 마블팬'을 채용, 열전도율을 높혀 음식물 조리가 빠르고 그릴 내부를 2중 테프론코팅 처리해 생선이 눌러 붙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주방의 인테리어를 중요시하는 주부, 여성고객의 감각을 고려해 독특한 꽃무늬 패턴과 동양적인 수채화 느낌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동양매직은 이 제품을 판매목표를 연 12만대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매직은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7월말까지 두달간 오븐레인지 구매고객 전 부에게 프랑스 명품식기 르쿠르제를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해외여행권, 식기세척기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가격은 오븐레인지 80만원대, 가스레인지 30만원대.

**삼성전기, 화상통화 전용 동영상(VT : Video Telephony) 모듈 개발**



삼성전기는 어두운 저조도(低照度) 환경에서도 동영상 성능이 4배 향상된 화상통신 전용 VT모듈을 개발했다고 지난 6월 19일 밝혔다.

3세대 휴대폰에는 정지화상을 촬영하는 고화소 카메라모듈(1백만화소 이상급)과, 동영상을 촬영해 화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저화소 카메라 모듈 등 2개의 카메라모듈이 채용된다.

화상통화용으로 기존에는 30만(640 X 480) 화소(픽셀) 카메라모듈을 적용, 이미지를 30만 화소로 촬영해 화상 통화에 필요한 2만5천개(176 X 144) 정도의 화소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과정(Sub Sampling)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화질 저하, 화상 끊김 및 잔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불만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삼성전기가 개발한 제품은 화상통화 전용 센서를 적용, 꼭 필요한 2만 5천 화소로 촬영, 처리해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전력은 기존의 1/3 정도인 26mW 에 불과하다.